

김규성

# 김선빈 빠진 KIA “툽타자 급구”

## T 타이거즈 전망대

월리엄스 감독의 ‘툽타자 찾기’가 다시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는 7일부터 KT 위즈와 안방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광주를 찾는다.

홈 6연전을 앞둔 KIA에는 고민이 쌓였다. 일단 마운드 분위기가 전환이 첫 번째 고민이다. KIA는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한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했다. 패배는 승을 더 챙겼지만, 패배의 충격이 컸다.

4일 양현종이 4.1이닝 8실점으로 고개를 숙였고, 5일에는 6-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충격의 끝내기 패를 당했다.

믿었던 전상현과 문경찬이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 특히 불뉘가 불미가 됐다. 전상현은 연속 불넷 뒤 박석민에게 스티어링을 맞았고, 문경찬도 불넷 뒤 김태진에게 동점 투런을 허용했다.

이날 패배로 7.2이닝 1실점의 호투를 했던 브룩스가 4경기 연속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하면서 마운드의 충격이 컸다.

홍상삼과 고영창 등 볼펜진의 페이스가 올라오자 선발과 마무리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오면서 마운드 자신감 찾기가 큰 숙제가 됐다.

또 하나 큰 고민도 생겼다. 바로 김선빈의 부상이다.

5일 경기에서 툽타자로 나온 김선빈은 첫 타석

주말 NC전 주루 중 허벅지 부상  
공·수 공백 커... 팀 최대 악재  
김규성·최정용 내야 시험대

이번주 KT·키움과 홈 6연전  
막강 타력 앞세운 팀 대결 ‘난관’  
나지완 2000루타 -4·800타점 -9  
최형우 1000득점 -7·10홈런 -1

### ■ KBO 중간순위 (6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52	36	0	16	0
2	키움	54	33	0	21	4
3	두산	53	31	0	22	5.5
4	LG	53	29	0	24	7.5
5	KIA	50	27	0	23	8
6	삼성	54	29	0	25	8
7	KT	53	25	0	28	11.5
8	롯데	51	24	0	27	11.5
9	SK	53	16	0	37	20.5
10	한화	53	13	0	40	23.5

에서 1루 베이스로 향한 뒤 강진성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6일 김진 결과 오른쪽 발목 타박상과 왼쪽 대퇴이두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왼쪽 대퇴이두근은 지난 6월에도 부상을 입었던 부

위다. 앞선 부상의 경우 13일 만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2-3주 정도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뜨거운 타격의 KT에 맞서기 위해 ‘툽타자’ 찾기가 다시 숙제가 됐다.

월리엄스 감독은 지난주 1번 자리에 변화를 줬다. 선구안과 타석에서의 여유가 떨어진 김호령을 대신해 김선빈을 타선 전면 배치했다. 툽타자 역할을 맡은 김선빈은 4경기 연속 3안타 행진을 펼치면서 월리엄스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툽타자 김선빈 체제가 4경기 만에 막을 내렸다. 공격의 물꼬를 터줄 툽타자를 찾아야 하고, 2루 빈틈도 채워야 한다.

팀의 위기가 김규성과 최정용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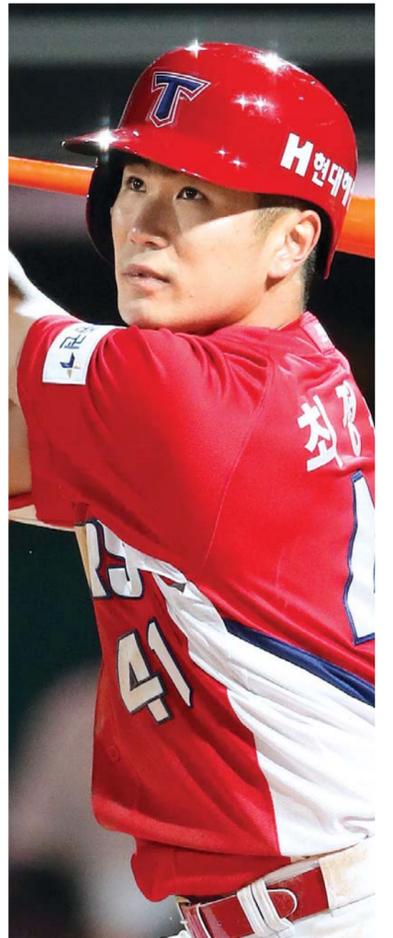
새로운 한 주 나지완의 기록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지완은 통산 53번째 2000루타에 4루타만을 남겨두고 있다. 800타점(통산 34번째)에는 9점이 부족하다.

최형우는 1000득점과 13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에 도전한다. 앞으로 7차례 더 홈에 들어오면 통산 18번째 1000득점 주인공이 된다. 7번째 13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기록을 놓고는 NC 박석민과 대결한다.

최형우가 10홈런에 하나만 남겨두고 있고, 박석민은 주말 KIA전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는 등 올 시즌 8개의 홈런을 터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정용

## 이강인은 떠나고 싶다

스페인 언론 “발렌시아 재계약 거절 이적 요청”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미드필더 이강인(19)이 소속팀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이적을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또다시 나왔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언론 수페르데포르테는 6일(한국시간)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이적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발렌시아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팀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고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까지 수상한 뒤 유럽 리그 팀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다.

당시 마르셀리노 토랄 전 감독의 새 시즌 구상에서 우선순위에 없었던 이강인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구단주가 이강인의 잔류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강인은 결국 발렌시아에 남게 됐다.

이강인의 새 시즌 출전 기회가 늘어나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강인은 2019-2020시즌 프리메라리가 13경기 출전(선발 2회)에 그치고 있다.

이강인과 발렌시아의 계약은 2022년까지다. 발렌시아에 이적료로 8000만유로(약 1079억원)를 제시하는 팀이 있으면 계약 기간에도 팀을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김광현, ML 개막 앞 선발 경쟁

다시 한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을 준비하는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6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에 따르면 김광현은 이날 홈구장인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타자를 타석에 세워두고 공을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김광현의 피칭 모습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김광현은 야다에르 몰리나, 맷 캠퍼너 등 팀 주

축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을 던지며 구위를 점점했다.

스프링캠프에서 김광현과 5선발 자리를 다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는 아직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가 오는 24일 또는 25일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마르티네스의 팀 훈련 합류가 늦춰지면 5선발 경쟁에서 앞서는 쪽은 김광현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 뼈아팠던 레드카드 2장 ... 광주 3연패 늪



광주FC의 펠리페(왼쪽)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진과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광주 FC, 달빛더비 2-4 패배  
전반 15분·후반 39분 레드카드... 열세 극복 못해  
상위권 팀들과 대등한 경기 내용은 ‘위안’

진한 아쉬움이 남는 패배였다.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대구FC의 경기 끝난 뒤 양 팀 사령탑은 모두 아쉬움을 말했다.

2-4 패배를 기록한 광주 박진섭 감독은 “초반에 선수들이 전술적인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였다. 아쉬운 장면들에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서 아쉬운 경기였다”고 돌아봤다.

승장이 된 대구 이병근 감독대행의 표정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는 “결과를 잘 내왔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경기였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경기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두 사령탑의 평가,

광주 입장에서는 잘 싸우고도 진 경기였다.

이날 광주는 전반 15분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를 만났다. 광주 이민기가 김우석에게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밟으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수적 열세에도 광주는 오히려 선제공격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펠리페가 전반 24분 이옴의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그대로 대구의 골망을 흔들었다.

위기 속에서도 전반전을 잘 마무리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5분의 악몽’이 펼쳐졌다.

후반 3분 대구 김대원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5분 데안이 역전골을 넣었고, 8분 다시 데안이 세리머니를 펼쳤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수비진이 5분 만에 세 골을 허

유했지만 광주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다. 펠리페가 후반 21분 이번에는 왼발로 멀티골을 만들면서 대구를 압박했다.

하지만 후반 39분 두 번째 레드카드가 나왔다. 이번에도 광주 선수를 향한 카드였다.

여봉훈이 세징야의 역습을 막으려다가 경고 카드를 받고 퇴장했다.

9명으로 어렵게 버티던 광주는 후반 44분 세징야에게 4번째 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에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던 광주는 퇴장 악재 속에 다시 승점 사냥에 실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다.

연패는 기록했지만 상위권 싸움 중인 상대들과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박진섭 감독은 “연패를 했지만 경기력이 나쁜 것은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승도 할 수 있고 연패를 할 수 있다. 다시 또 연습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구전 패배를 보약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당신도 도전하면 ‘K리그 목소리’

프로축구연맹, 전문 해설자 찾기 서바이벌...17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중계진으로 활약할 인재를 찾는 ‘케꿀보이스’를 진행한다.

‘케꿀보이스’는 K리그 중계에 재미를 더할 ‘꿀보이스’를 찾는다는 의미로 축구 해설에 관심있는 이들을 모집해 우수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축구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서 ‘케꿀보이스’를 검색한 후 신청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축구 전문 해설자 또는 캐스터를 꿈꾸는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최종 1인은 서류 전형 이후 총 3차에 걸친 중계 미션을 통해 선발된다. 최종 1인은 상금 100만원

과 함께 2020시즌 종료 시까지 매일 1회씩 중계 중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현장 중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맹 자체중계팀의 정식 중계진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참가자들은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계 미션에서 ▲K리그 라운드별 아프리카TV 개인방송 중계 ▲유명 해설자 및 캐스터와 합동 방송 ▲K리그 공식 현장 중계 방송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참가자는 선발 기간 동안 ▲K리그와 한국축구의 역사 ▲축구 방송인으로서 자세 등 관련 교육을 통해 K리그 중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